2026.10.11 · 전날 독해

위험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답하면: 오늘은 **기술이 가져오는 평균적 이익과 실제 사람의 이동 경로, 좋은 설명과 높은 점수의 차이, 위험을 만들어 내는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노동시장·경제이론·신약학·AI 평가·정치철학을 연결해 읽었습니다.

> **새 글 11편 전문 독해, 8편 분석.**

대상은 10월 10일 00:00~23:59 KST에 게시된 글입니다. 받아 온 해당 기간의 피드 본문을 링크 모음까지 모두 끝까지 읽은 뒤 선택했습니다. 연결된 논문이나 기사 전체가 피드에 들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추가 확인한 자료는 본문에 따로 밝혔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읽으실 글은 콜센터 고용 분석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새로 들어갈 입구가 줄고, 나오는 사람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AI의 인과효과가 확정된 연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Psephizo·EconLog·Gelman은 오늘도 정상 요청에서 403으로 거부됐습니다. 그곳의 새 글은 읽지 못했으므로 오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후 추가 재시도나 우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조건부 출처이며 전문은 해당 피드의 본문 기준입니다.

일자리의 총량보다 입구와 이동 경로를 보십시오

[확인된 데이터] MR은 콜센터 인력 감소와 다른 사무직으로의 전환 문제를 소개합니다. MR의 소개 원자료 제공사 Revelio Labs의 10월 6일 글도 전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콜센터 인원이 2023년 12월 정점보다 5.3% 적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관측된 이직자 중 10.8%만 기술지원·고객성공·소프트웨어/데이터 직종으로 이동했다고 보고합니다. Revelio 원문

[확인된 데이터] 원문에서 더 중요한 설명은 해고가 늘어서가 아니라 **입직이 퇴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 산업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체 사무직은 여전히 성장하며 일부 국가의 콜센터 고용은 늘고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원문, 입직·이직 분석

[제 판단] 이것은 대량 해고만 찾으면 놓치는 자동화의 경로입니다. 기존 직원은 남아 있어도 신규 채용이 줄면 청년과 처음 사무직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은 새 직종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노동자가 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관점에서도 생산력의 상승과 노동자의 생활 개선 사이에 제도·숙련·교섭력·접근권이 끼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 자체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아닙니다. 기술 낙관론과 비관론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누구의 전환 비용을 계산에서 빼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미확인] Revelio는 어떤 기업이 사람을 챗봇으로 대체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다른 사무직과의 차이는 AI 역할의 정황이지 확정된 인과 추정이 아닙니다. 공개된 글로 자료의 국가별 대표성·누락·직업 분류 정확도를 독립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10.8%는 관측된 이직자라는 분모를 가진 수치이지 모든 퇴직자의 성공률이 아닙니다.

경기 위험을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다면

[확인된 데이터] MR의 「The origin of risk」는 기업이 생산성의 평균·변동성과 다른 기업과의 상관관계를 선택하는 모형을 소개합니다. MR 소개 학술지 QJE의 실제 초록도 확인했습니다. 세금과 마크업 같은 왜곡이 위험 선택에 영향을 주어 GDP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QJE 초록, 9월 30일

[제 판단] 중요한 전환은 위험을 날씨처럼 외부에서 떨어지는 충격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비슷한 수익 기회를 택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각각의 선택이 합쳐져 전체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합리성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같지는 않습니다.

AI 투자에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같은 수요 전망과 고객군에 의존할 때 각자의 투자 위험만 보는 것으로 충분한가? 한 기업의 매출이 다른 기업의 투자 지출인 구조에서는 개별 매출 증가가 최종 수요의 확장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모형에서 끌어낸 적용 질문이며 논문의 AI 실증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왜곡을 없애면 GDP 변동성이 줄었다"는 결과가 모든 세금 폐지의 현실적 근거는 아닙니다. 어떤 세금과 시장구조를 어떤 모형으로 표현했는지, 재분배·공공서비스·외부효과의 비용까지 포함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형의 위험 척도와 사람의 생활 안정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미확인] 이번에는 논문 초록만 읽었고 본문·부록·보정값·코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위험 선택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와 인과효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초록 확인"을 "논문 전체 검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71점은
71%의 확률이 아닙니다

[확인된 데이터] Jesus Memoirs는 John F. Lingelbach의 무라토리 단편 연대 연구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 가설을 개연성·설명 범위·설명력·신뢰성·단순성으로 비교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쓰며, 연구자의 평균 점수는 이른 가설 71%, 늦은 가설 20%라고 소개합니다. 10월 10일 전문

[제 판단] 이전 시험판에서 연대 논쟁의 지형을 봤다면, 이번에는 판단 기준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별 점수의 평균을 역사적 사실의 확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점수와 확률은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71%라고 적었다고 "2세기 문서일 확률 71%"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설명은 하나의 눈에 띄는 구절만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자료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설명하는지로도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 요약에서 이른 연대에 유리한 핵심은 『목자』를 "최근, 우리 시대"라고 한 문구와 몇몇 책의 빠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표현이 후대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 침묵을 부재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른 연대를 옹호하는 연구도 모든 유사성이 이른 연대를 강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설과 양립 가능한 증거와 어느 가설에 더 유리한 증거를 나눕니다. 표에 항목을 많이 넣는 것보다 같은 근거를 여러 이름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글 끝의 순교자 유스티누스 또는 그 학파라는 저자 제안도 결론과 별개로 평가해야 합니다. 연대를 좁혀 후보를 줄이는 것과 특정 저자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바트 어만을 비롯한 정경 논의에서도 "문서의 시기", "목록의 권위", "교회 전체의 합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확인] 블로그의 전체 요약은 읽었지만 학위논문 원문 전체와 점수 산정 절차를 독립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학계 합의나 확정 저자·연대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은 새 고대 문서 발견이 아니라 기존 연구를 새로 소개한 글입니다.

같은 일을 재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데이터] Lemire는 몇 년 전 Bun이 Node.js보다 두 배 빠르다고 본 자신의 WebSocket 시험이 잘못됐다고 정정합니다. 한쪽은 메시지를 원래 보낸 사람에게 바로 돌려줘 왕복당 메시지 수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왕복 작업, 클라이언트 병목, 실행 조건을 다시 맞춥니다. 실험·정정 전문

[제 판단] 숫자 차이가 커 보여도 두 시스템이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성능 비교가 아닙니다. AI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모델이 도구·검색·긴 추론을 쓰고 다른 모델이 제한된 조건에서 답하면 점수만으로 모델 자체의 우열을 말할 수 없습니다. 검토 기준과 실패 처리까지 같아야 합니다.

또한 한 쌍의 클라이언트가 로컬에서 주고받는 실험과 수많은 실제 사용자의 서버 부하는 다릅니다. 평균 지연과 꼬리 지연도 구별해야 합니다. 개발자의 공개 정정은 좋은 신뢰 신호지만, 정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새 결과의 독립 재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Econbrowser의 소비자 심리 글은 미시간대 지표를 조정한 경우와 조정하지 않은 경우의 그림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기대와 현재 상황도 나눕니다. 경제심리 지표 글

[제 판단] 이 글 역시 측정의 조건을 묻습니다. 조정값이 있는 지표의 약화를 곧바로 실제 소비 감소나 경기침체로 번역하면 단계를 건너뜁니다. 지표의 조사·비교 방식, 다른 심리 지표, 실제 지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술 시험과 경제 통계 모두 "단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확인] Lemire의 코드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으며 원문의 기업 인수·제품 버전 설명도 따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Econbrowser의 지표 수치·조정 논문·원자료와 도표 이미지는 확인하지 않아 경기 판단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05 · 경제 / 정책 논증

사람이 떠난 이유를 세금 하나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확인된 데이터] MR이 소개한 California 논문 초록은 좋은 기후가 주는 입지 이익이 소득세와 주택공급 제약 등을 통해 포획되며 주민 이동을 자극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 소유자를 붙잡는 제도가 관측되는 이동을 줄일 수도 있다는 논리도 제시합니다. 소개된 초록 전문

[제 판단] 유용한 관점은 땅처럼 움직이지 않는 과세 기반과 사람·일자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과세 기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같은 세수라도 어디서 걷느냐에 따라 이동과 주택공급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론적 가능성과 California의 실제 유출 원인을 특정했다는 결론은 분리해야 합니다.

높은 소득자의 유출이 더 크다는 관찰은 세금 가설과 맞지만, 주거비·고용 구조·원격근무·연령·가족 사정 같은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한 주의 장점이 여러 가지인데 주간 단순 비교로 생산의 이점을 고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초록 스스로 인정합니다.

지난 보고서의 세금 설계 논의와 연결하면 질문은 "증세냐 감세냐"보다 정교해집니다. 세금의 이동 효과만 재면 재분배·서비스의 이익을 놓칠 수 있고, 세수만 재면 주택 제약과 일자리 이동 비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느 비용을 모형 밖에 두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미확인] 이번에는 MR에 포함된 초록만 전문으로 읽었습니다. 연결된 SSRN 논문 전체, IRS 이동 통계, 경계지역 비교의 설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개된 수치를 독립 확정하거나 California 주민이 세금 때문에 떠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유용성으로만 계산하지 않기

이 절은 죽음·말기 질환과 관련한 윤리 논의를 다룹니다. 행동 권유가 아니라 원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내용입니다.

[확인된 데이터] Schwitzgebel의 「Giving One's Life」는 말기 질환이라는 가정에서 자기희생의 의미를 묻지만, 냉정한 효과 계산을 이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암시하지 않겠다고 하며, 생명을 타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계도 적습니다. 원문

[제 판단] 여기서 붙잡을 것은 희생을 미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기여량으로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제한입니다. 남은 시간의 가치가 짧다고 존엄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는 효과적 이타주의의 계산과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윤리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원문의 위험한 가능성 제시는 구체적 행동 안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Daniel Little의 「Yes we can」은 다문화 민주주의의 긍정적 이야기와 예술이 증오·분열의 정치적 이야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문 전문

[제 판단] 앞 글이 개인을 목적의 도구로만 대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글은 시민을 공포로 동원할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려 보자고 제안합니다. 정치적 판단은 통계와 논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래·소설·만화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만드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다만 아름다운 메시지가 자동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긍정적 이야기가 실제 생활의 불안과 제도적 불평등을 만나지 못하면 홍보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만화 정치비평에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삶을 보이게 하며 누구의 불안을 생략하는가?

[미확인] 철학 글의 가정은 현실의 의학적 판단이 아니며 개인 행동의 기준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Little이 연결한 영상 전체, 사회심리학 이론과 세대별 정치 성향 자료도 별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정치적 주장을 사회 전체의 확정된 실태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꼭 읽을 글

자료·논증·측정의 빈틈을 읽는 순서

1. 콜센터 고용과 노동자의 다음 일자리
소개글보다 원문이 낫습니다. 해고와 채용 감소의 구별, AI 원인 추정의 한계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2. 무라토리 단편 연대와 최선의 설명
이른 연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가설 비교 기준과 점수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성능 비교를 정정한 실험
기술 세부를 다 몰라도 "같은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분명히 읽힙니다.

보충: 위험의 내생성과 QJE 초록을 함께 읽으면, 위험을 외부 충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경제학적 전환을 볼 수 있습니다.

> [제 판단] 오늘의 연결 문장
> **평균적 성과가 좋아져도 과정이 공정하거나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자의 이동, 가설의 평가 기준, 시험의 조건, 정책의 빠진 비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있는 주장, 추가 자료로 확인한 내용, 제 해석을 구별했습니다. 새 글은 각 피드에서 한 번만 읽었고, 외부 링크 중 실제로 추가 읽은 것은 Revelio 전문과 QJE 초록입니다. 그 밖의 연결 자료까지 읽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